

## 칸토니즈 팝과 한국 대중문화, 그리고 팬덤\*

— 1980~1990년대 한국의 홍콩 여성 스타 수용을 중심으로

김정은\*\*

### 목 차

1. 머리말
2. 홍콩영화 속 여성 스타의 이미지
  - 1) 왕조현: 청순한 여성
  - 2) 임청하: 중성적이고 강인한 여성
  - 3) 구숙정: 섹시한 여성
3. 한국 대중문화에서의 수용과 영향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80~1990년대 홍콩영화 속 여성 스타들의 한국 수용을 고찰하여 한류의 전사(前史)로서 홍콩영화 속 여성 스타들이 한국 대중문화와 팬덤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1980~1990년대 당시 홍콩영화에서 활약했던 왕조현, 임청하, 구숙정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구축한 이미지와 기호를 분석하여, 이들이 한국 대중문화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였다. 왕조현, 임청하, 구숙정이 1980~1990년대 홍콩영화 속에서 연기한 여성 캐릭터들은 이전의 전통적이고 수동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4465). 이 글은 '제25회 한중교육문화포럼'(2023년 11월 25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하였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강원대학교 강사

적인 여성 캐릭터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캐릭터들로 여성 캐릭터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인식을 형성했다. 이는 이후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속 여성 캐릭터의 변화와 대중문화 팬덤의 다양성 구축에 일조했다는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의의가 있다.

**키워드** : 칸토니즈 팝, 홍콩영화, 여성 스타, 팬덤 문화, 한류

## 1. 머리말

본 연구는 1980~1990년대 홍콩영화 속 여성 스타들의 한국 수용을 고찰하여 한류의 전사(前史)로서 홍콩영화 속 여성 스타들이 한국 대중문화와 팬덤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0~1990년대 홍콩영화는 다양한 장르와 소재들을 결합하여 영화 미학에 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홍콩의 다양한 영화들이 대거 한국에 유입되면서 한국에서 홍콩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에 버금가는 큰 인기를 누렸다. 이러한 홍콩영화의 인기는 단순히 상업적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 한국 대중문화와 팬덤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홍콩영화의 다양한 장르와 그 인기는 그야말로 ‘군웅할거(群雄割據)’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1980~1990년대 홍콩영화는 특수효과(SFX)와 무협, 그리고 멜로 등의 여러 장르를 적절히 믹스(Mix)하여, 기존 영화들과는 다른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였고, 이는 한국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sup>1)</sup> 특히 정소동(程小東)<sup>2)</sup> 감독의 ‘천녀유혼 시리

1) 연구자는 이전 연구에서 한국에서의 홍콩영화 수용 단계를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1966년 이전은 형성단계, 1967~1972년은 발전단계, 1973~1986년은 고조단계, 1987~1997년은 황금 단계, 1998년 이후는 쇠락 단계이다. 황금 단계에 해당하는 1987~1997년은 매년 홍콩영화가 적게는 17편에서 많게는 88편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할리우드 영화와 함께 한국영화시장을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즈’, ‘동방불패 시리즈’와 ‘백발마녀전 시리즈’ 등은 당시에는 보기 힘든 시각적 효과와 다채로운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한국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다양한 홍콩영화의 한국 내 흥행은 여러 여배우를 일약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또한, 홍콩영화 속에서 히로인으로 활약한 많은 여성 스타들은 단순히 남성 캐릭터의 상대역이나 조연, 배경 역할에 그치지 않고, 영화 속 스토리 축을 이끄는 주체적인 역할로 기존 영화들의 여성 캐릭터 역할을 초월하는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홍콩영화 속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는 한국에서 그동안 여성 캐릭터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여성 캐릭터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는 데 일정 정도 공헌했다. 이렇게 홍콩영화 속에서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연기한 홍콩 여성 스타들은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팬덤을 형성하였다. 이는 남성 스타 위주의 홍콩영화 팬덤에서 유의미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홍콩영화가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구가하던 1980~1990년대 홍콩영화 속에서 히로인으로 활약하던 여러 여성 스타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왕조현(王祖賢), 임청하(林靑霞), 구숙정(邱淑貞)이라는 세 여성 스타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세 여성 스타는 한국 대중문화에서 지금까지도 종종 회자되며 일정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홍콩영화에서 각기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며 주목을 받았고, 당시 각기 다른 팬층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왕조현은 홍콩영화 속에서 순수하면서 청초한 여성 캐릭터를 자주 연기하며 한국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왕조현이 연기한 캐릭터는 남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상이었다. 왕조현은 매우 여성적이고 가냘픈 이미

김정은, 「香港電影傳入韓國的歷史與現狀」, 『한중언어문화연구』 제18집, 사단법인 한국현대중국연구회, 2008, 347쪽 <표1> 참고.

2) “본고에서 한중 수교 이전 홍콩영화 전성기 시절 한국에 수용되고 인기를 끌었던 홍콩과 대만 스타들의 인명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이 아닌 한국에서 통용되었던 방식에 따른다. 예를 들어 이소룡, 주윤발, 장국영, 주성치, 왕조현과 같이 한국에서 이들의 이름을 한자 독음으로 호명할 때 한국 스타와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문화 아이콘으로서 한국에서 소구되어 왔던 문화적 맥락과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한국의 홍콩 스타 수용과 팬덤의 문화적 함의」, 『한중언어문화연구』 제70집, 2023, 327쪽.

지의 여성상을 보여주며 한국의 남성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여전히 한국인의 기억에 청순함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다.

반면, 임청하의 경우는 홍콩영화 속에서 중성적이며 강인한 여성 캐릭터를 자주 연기하여 한국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남성 캐릭터와 동일하거나 혹은 남성 캐릭터를 능가하는 무공의 강자로 등장하며 중성적인 매력으로 한국 관객에게 어필하였다. 그녀의 캐릭터와 이미지는 그 전에는 볼 수 없는 여성상이었고, 이는 한국에서 남녀 모두에게 인기를 끄는 요소가 되었다.

구숙정의 경우는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섹시한 여성 캐릭터를 자주 연기하며 한국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가 연기하는 섹시한 여성 캐릭터는 단순히 남성의 성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 캐릭터로 당시 한국 대중문화에서 찾기 힘든 섹시 스타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섹시한 여성 이미지는 한국 관객들, 특히 남성 팬층을 포섭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홍콩영화 속 여성 스타들은 다양한 이미지와 기호를 구축하며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이들 홍콩영화 여성 스타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왕조현, 임청하, 구숙정을 중심으로 1980~1990년대 당시 홍콩영화 여성 스타들이 구축한 이미지와 기호를 분석하여 그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이 이후 한국 대중문화와 팬덤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2. 홍콩영화 속 여성 스타의 이미지

존 스토리(John Storey)는 “대중영화는 이야기와 구경거리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능동적 남성과, 후자는 수동적 여성과 연관된다. 남성 관객은 자아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남성 주인공(주목하는 자)에 자신의 응시를 고정시키며,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남자 주인공을 통해

서 여주인공을 향한 응시(에로틱한 시선)를 고정시킨다.”<sup>3)</sup>라고 한 바 있다. 2000년대 이전 대중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스토리를 이끄는 능동적 여성보다는 수동적 여성으로 남자 주인공의 보조적 역할을 맡거나 남자 주인공과의 로맨스를 펼치는 파트너로서 남성 관객의 응시 대상이 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1980~1990년대 당시 홍콩영화의 여성 스타들은 이러한 수동적 여성상만을 연기한 것이 아니었다.

### 1) 왕조현: 청순한 여성

왕조현은 대만 출신으로 1984년 대만에서 데뷔한 후 1985년 홍콩으로 건너가 1987년 출연했던 홍콩영화 <천녀유혼(倩女幽魂, A Chinese Ghost Story)>(1987)으로 아시아에서 많은 인기를 구가했던 여성 스타이다. 대만에서 먼저 데뷔하였지만, 당시 대만의 영화산업이 홍콩영화에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조현은 홍콩영화에서 활약하며 홍콩영화의 대표적인 여성 스타로 군림했다.

<그림 1> 영화 <천녀유혼> 속 왕조현<sup>4)</sup>



3) John Storey, 박만준 옮김,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서울:경문사, 2006, 162쪽.

4) 출처: 네이버 영화

로맨틱 코메디 호러 영화인 <천녀유혼> 속 왕조현이 연기한 여자 귀신 ‘섭소천(聶小倩)’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이다. ‘나무 요괴’에게 잡혀 있는 몸으로 남성을 유혹해 정기를 빼앗는 요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무 요괴에게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사랑하는 인간 남자 ‘영채신(寧采臣)’을 위해 자신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나무 요괴와 ‘흑산노요’에게 맞서 대항하기도 하고, 자신의 환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영화 속 섭소천은 마냥 여성적이고 가냘픈 이미지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천녀유혼> 속 섭소천은 영화 스토리의 중심축을 이루는 캐릭터이자 ‘장국영(張國榮)’이 맡은 인간 남자 영채신을 리드하는 주체적인 여성이다.

〈그림 2〉 영화 <청사> 속 왕조현<sup>5)</sup>



이는 왕조현의 또 다른 대표작 <청사(靑巳, Green Snake)>(1993)의 여자 주인공 ‘백소정(白素貞)’도 마찬가지이다. 홍콩영화 <청사>는 왕조현과 장만옥(張曼玉)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무협 판타지 영화이다. 천년 묵은 백사인 백

5) 출처: <https://kr.people.com.cn/n3/2017/0817/c310295-9256710-6.html>, 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소정은 인간인 ‘허선(許宣)’과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이다. 기존의 무협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은 강인한 무술을 가진 남성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남성과의 로맨스에서 남성의 구애를 받는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태반이었다. 하지만 <청사> 속 백소정은 인간이 되고 싶어 노력하고, 인간인 허선에게 반해 적극적으로 그를 유혹해 사랑을 나누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묘사된다. 물론, 천년 묵은 백사라는 캐릭터의 설정에 여성을 요부로 묘사하는 기존의 스테레오 타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사> 속 백소정은 선행을 많이 베풀어 인간인 허선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해 아들을 구하는 선한 여성이기도 하다.

왕조현은 1980~1990년대 당시 홍콩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대중들에게 ‘청순함’의 대명사로 남성들이 여성 스타에게 기대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남성 관객의 응시 대상이 되는 수동적 여성상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중요한 캐릭터이자 때로는 남자 주인공을 리드하는 주체적인 여성상을 연기했다. 이는 ‘청순함’ 이미지를 가진 많은 여성 스타 중에서도 그녀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이유이다.

## 2) 임청하: 중성적이고 강인한 여성

임청하는 대만 출신으로 홍콩영화에서 활약한 여성 스타이다. 대만영화로 먼저 데뷔하였지만 역시 홍콩영화에 출연하면서 아시아권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임청하는 데뷔 초에는 여성의 청순함을 어필하는 캐릭터를 연기하였으나 <금옥양연홍루몽(金玉良緣紅樓夢, The Dream Of The Red Chamber)>(1977)에서 처음으로 남성역을 맡은 이후, <도검소(刀劍笑, The Three Swordsman)>(1988)와 <동방불패(笑傲江湖之東方不敗, Swordsman II)>(1992)에서도 남성 역할을 맡아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그림 3〉 영화 〈동방불패〉 속 임청하<sup>6)</sup>

이후 임청하는 <신용문객잔(新龍門客棧, Dragon Inn)>(1992), <절대쌍교(絶代雙驕, Handsome Siblings)>(1992), <백발마녀전(白髮魔女傳, The Bride With White Hair)>(1993), <천룡팔부(天龍八部之天山童, Dragon Chronicles)>(1994) 등 여러 무협 영화에서 남성애 버금가는 혹은 남성을 능가하는 무림 고수의 역할을 주로 맡아 중성적이면서도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이는 이전의 많은 홍콩 여성 스타들이 가지고 있던 스테레오타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처럼 임청하는 홍콩의 다른 여성 스타들의 ‘여성스러움’과는 다른, 강인하고 중성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선보이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임청하의 강인하고 중성적인 여성 이미지는 왕가위 감독의 영화 <중경삼림(重慶森林, Chungking Express)>(1995)에서 여성 킬러 역할을 맡으며 더 극대화되었다. 기존의 홍콩 누아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연기했을 법한, 바바리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총구를 들이키는 임청하의 모습은 이전의 여성 캐릭터와는 확연히 다른 이미지였다. <중경삼림> 속 임청하는 강인하면서도 고독한 여성 킬러로 이전 홍콩영화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여성 캐릭터 스

6) 출처: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492>, 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타일로 관객들에게 각인되었다.

〈그림 4〉 영화 〈중경삼림〉 속 임청하



### 3) 구숙정: 섹시한 여성

미스 홍콩 출신의 구숙정은 홍콩에서 연예 활동 당시 중화권 연예계의 여신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끈 스타이다. 구숙정은 3급 에로물에 다수 출연하며 ‘귀여운 글래머’라는 애칭을 갖게 되었다. 이는 구숙정이 섹시한 이미지와 동시에 귀여운 이미지를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요즘 말하는 ‘베이글녀’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숙정은 1992년 <적나고양(赤裸羔羊, Naked Killer)>(1992)에서 여성 킬러 역을 소화하며 란제리와 수영복 패션으로 등장하여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출연한 여러 영화에서도 역시 섹시함을 어필하며 홍콩 여성 스타 중 대표적인 섹시 스타로 많은 남성 팬들을 확보했다. 당시 구숙정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는 2017년 중국의 모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가장 사랑하는 여신’ 투표 결과를 소개하는 다음 블로그

7) 출처: <https://blog.naver.com/sincia11/222265443157>, 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모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가장 사랑하는 여신’ 투표 결과가 공개되서 기사화됐는데요. 4위 주인 3위 왕조현 2위 고원원 그리고 1위는 구숙정으로 구숙정이 가장 사랑하는 여신으로 선정됐습니다.<sup>8)</sup>

구숙정은 <시티헌터(城市獵人, City hunter)>(1993)에서 남자 주인공인 ‘성룡(成龍)’과 함께 액션 씬을 소화하며, 섹시하면서도 강인한 여성 캐릭터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남자 주인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의 캐릭터였지만 성룡에게도 밀리지 않는 캐릭터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구숙정의 이미지는 당시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성 스타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림 5> 영화 <시티헌터> 속 구숙정<sup>9)</sup>



또한, 구숙정은 <외전혜옥란(外傳惠玉蘭, Lover Of The Last Empress)>(1995)에서 중국의 3대 악녀로 손꼽히는 ‘서태후’를 연기했다. 이 영화에서

8) 출처: <https://blog.naver.com/kinkis/221020093892>, 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9) 출처: <https://blog.naver.com/whitekoff/140092307603>, 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그녀는 ‘서태후’가 순진한 소녀에서 악랄한 악녀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연기했다. 비록 <외전해옥란>은 삼류 에로물에 가까운 영화였지만 구숙정이 연기한 ‘서태후’는 남자 주인공들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남성들 위에 군림하는 주체적 여성 캐릭터였다.

<그림 6> 영화 <외전해옥란> 속 구숙정<sup>10)</sup>



구숙정은 “남자 주인공을 통해서 여주인공을 향한 응시(에로틱한 시선)를 고정”<sup>11)</sup>시키는 대중영화의 남성 관객들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켜 주는 전형적인 여성 스타의 이미지를 구축한 홍콩 여성 스타였다. 그러나 구숙정은 정작 그녀가 출연한 영화에서 단 한 번도 수위 높은 노출을 한 적이 없었다. 영화의 포스터나 비디오테이프 케이스에서 구숙정은 영화 속에서 그녀의 노출 수위가 굉장히 높을 것처럼 선전되어 졌다. 하지만 정작 영화 속에서 구숙정은 약간의 노출 이외에 수위 높은 노출은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之魔教教主)>(1994)와 <소림오조(少林五祖, The New Legend Of Shaolin)>(1994)에서 ‘이연걸(李連杰)’과 함께 강도 높은 무협 액션 씬을 소화하며 단순히 여성의 몸만을 과시하는 섹시 스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10) 출처: [https://blog.naver.com/cine\\_azit/224002975877](https://blog.naver.com/cine_azit/224002975877), 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11) John Storey, 박만준 옮김, 위의 책, 162쪽.

이처럼 왕조현, 임청하, 구숙정은 각기 다른 이미지와 여성성을 구축하며 각각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영화 속에서 연기한 캐릭터는 단순히 남성에게 종속되는 수동적 역할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이기도 했다. 남성 캐릭터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영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 캐릭터의 모습은 당시 홍콩 영화의 스펙트럼을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스타의 이미지와 여성성 구축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 3. 한국 대중문화에서의 수용과 영향

1980~1990년대 당시 홍콩영화에서 활약했던 왕조현, 임청하, 구숙정은 각각 청순한 여성, 중성적인 강인한 여성, 섹시한 여성이라는 각기 다른 이미지와 기호를 구축하며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따라서 이들을 좋아했던 남성 팬들이 선호했던 여성성은 각각 다르다. 왕조현의 남성 팬들은 여성에게 오랫동안 요구되어왔던 여성, 남성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성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좋아했다. 이와 반대로 임청하의 남성 팬들은 ‘누님’이라는 새로운 여성상을 좋아했다. 구숙정의 남성 팬들은 그들의 성적 판타지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서 구숙정을 좋아했다.

한국에서 왕조현은 홍콩영화 속 여러 캐릭터의 모습과는 별개로 <천녀유혼> 속의 여성적이고 가냘픈 이미지의 여성상이 강조되며 일약 청순한 여성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천녀유혼>은 한국에서 1987년 12월 25일 개봉하였는데 흥행에 성공하며 영화의 히로인이었던 왕조현은 한동안 한국에서 많은 남성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는 다음의 기사에서도 잘 알 수 있다.

1987년 한국에 개봉한 전설적인 영화 두 편 기억하시나요. 5월엔 ‘영웅본색’, 12월엔 ‘천녀유혼’이 극장 개봉했습니다. 진짜 그 때 남자애들은

다 주윤발(저우룬파·周潤發·69) 따라 하느라 입에 성냥개비를 물고 다니고, 왕조현(왕쭈셴·王祖賢·57) 사진이 들어간 책받침이나 연습장 없는 애들이 없었죠. 짧았던 홍콩영화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이 두 작품, 공통점은 배우 장국영(張國榮·레슬리 청·1956~2003)입니다.<sup>12)</sup>

이러한 왕조현의 인기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의 한국 사회와 문화를 재현했던 한국드라마 <응답하라 1988>(2016)의 1화 시작 내레이션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레이션이 나오는 동안 드라마 속에서 보여주는 왕조현의 모습은 여성적이고 가냘픈 그야말로 청순함 그 자체이다.(아래 <그림7> 참고)

<그림 7> 한국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왕조현



드라마 속 내레이션: 남자들은 소머즈와 왕조현과 소피 마르소와 히메나 선생님에 열광했고 [...]

이 같은 사실들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왕조현이 어떠한 이미지로 소구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왕조현은 남성들이 흔히 여성에게 기대하는 스테레오 타입, 남성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청순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로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12) 이태훈, 「[연휴 공연 뭐 볼까] 90년대를 추억하며 '굿모닝 홍콩', 친구끼리 조선 클러버 '금란방', 『조선일보』, 2024년 9월 14일.

반면 임청하는 중성적이면서도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로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임청하가 처음에는 여러 홍콩영화 속에서 청순한 캐릭터를 맡아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기억되는 임청하의 이미지는 중성적이면서도 강인한 여성상이다. 이는 다음의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올해 67세가 된 임청하, 일단 나에게 임청하는 왕가위 영화 속 인물로 먼저 기억된다. 먼저 <중경삼림>에서 금발의 가발과 선글라스, 레인코트로 자신을 감춘 묘령의 여인이 떠오른다. 마약을 빼돌린 범인을 찾으러 동분서주, 피의 응징을 하는 등 무척이나 피곤한 하루를 보낸 뒤 바에 앉아 한잔 기울이는 그녀, 그런 그녀에게 다가오는 천진스런 풋내기 금성무도 떠오른다. <동사서독>에서의 임청하는 또 어떤가. 사막에 천막을 짓고 청부살인을 하는 허무주의자 장국영에게 다가와 일을 의뢰하는 의문의 여인이 또한 임청하였다. 아무튼 두 배역 모두 평범한 역은 아니었다. 자, 왕가위 영화에서는 그렇다 치고, 내 나이쯤 되는 세대에게 임청하는 대개는 아마도 중성적 매력을 지닌 독보적 무협 고수로 많이들 기억할 것 같다. 그 인상이 너무도 강렬하다. 예컨대 대표적인 예가 <동방불패>와 <백발마녀>, <절대쌍교>, <신용문객잔> 등의 영화들이다. 각자 나름의 매력과 개성을 지닌 작품들이며 90년대 홍콩 무협물에서 빠뜨릴 수 없는 영화들이기도 한데, 임청하의 매력과 카리스마가 심분 발휘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영화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영화 속 임청하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사실 이런 작품들은 대개 다 90년대 작품들이고 시기적으로 보자면 임청하의 후기작들이다. 임청하는 사실 70년대에 데뷔하여 다양한 배역을 맡아 활약했고, 단아하고 청순한 배역도 많이 맡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90년대 초반 여러 무협영화에서 워낙 강렬한 인상과 매력을 선보인 관계로 임청하 하면 바로 떠올리는 이미지, 그리고 영화들이 있는 것이다. 캐릭터가 그만큼 센 것이었는지, 연기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사실 굉장한 미인임에도 중성적으로 기억되는 게 참 특이하다.<sup>13)</sup>

특히,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끈 영화 <동방불패>에서 임청하는 남성에서

13) 이종철, 「[무비&차이나] 임청하와 종초홍」,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이슈&연구, 문화, 출처: <https://yonseisinology.org/articles/culture/1001>, 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여성화되는 ‘동방불패’를 연기하며 중성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많은 한국의 남성 팬들을 임청하 ‘누님’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는 <동방불패>를 리뷰하거나 추억하는 여러 블로그 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블로그 글은 다음과 같다.

그냥 임청하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다시 봐도 이 작품은 기술적인 면모와 더불어 캐릭터와 캐스팅이 상당히 매력적이란 점을 부인하기 힘들 것 같네요. [...] 임청하의 기막힌 중성적인 면모는 어색한 남성 목소리 더빙에도 불구하고 이질감은 없었습니다. [...] 옥에 티도 많고 사람이 마치 인형처럼 찢겨 나가는 장면이 워낙 많지만 어릴 적 흡성대법 외쳐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임청하 누님의 브로마이드와 이후 거의 모든 영화를 극장에서 보러 갔던 저의 10대를 기억하네요.<sup>14)</sup>

당시 임청하의 이런 중성적이고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는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성 스타의 모습이었다. 1980~1990년대 당시 한국영화와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여전히 여성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스테레오 타입의 여성 스타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임청하는 한국에서 독특한 여성 스타의 이미지와 기호를 구축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사실은 홍콩 배우 전성 시대를 추억하는 다음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1992년을 대표하는 홍콩 영화로 어떤 작품을 꼽을 수 있을까. 개인 취향에 따라 여러 작품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누아르에서 무협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큰 의미를 갖는 ‘동방불패’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 영화를 통해 임청하가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1992년에는 임청하 주연 개봉 영화가 ‘동방불패’ ‘절대쌍교’ ‘신용문객잔’ 등 3편이나 된다. 당시 임청하는 이미 38세로 데뷔한 지 20여 년 가까이 되는 중화권에선 오랜 기간 톱스타였던 배우다. 한국에서 이즈음 크게 주목받았지만 임청하는 1973년 전형적인 청순가련형 스타로 데뷔한 배우였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동방불패’에선 중성적인 캐릭터였는데 그 인기로 ‘신용문객

14) 출처: <https://blog.naver.com/hanyu313/223012965084>, 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잔' '절대쌍교' '도검소' '화룡풍운' '육지금마'의 영화에서도 남장여인 역할을 소화해 큰 인기를 얻었다.

국내에서 1995년 개봉한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과 '동사서독'으로 또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한 뒤 작품 활동이 거의 중단된다. 그 이유는 1994년 임청하가 세계 500대 갑부에도 이름을 올린 재벌 싱리위안(형이 원)과 결혼해 은퇴했기 때문이다.<sup>15)</sup>

한국에서 구숙정은 여러 영화에서 섹시한 여성 캐릭터로 많은 남성 팬의 사랑을 받은 홍콩 여성 스타였다. 당시 한국에서 구숙정의 이미지는 섹시 이미지를 가진 홍콩 여성 스타 중에서도 독특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귀여움과 섹시함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는 1983년생인 한국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중 한 명인 '김희철'이 구숙정에 대해 언급한 발언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진짜 내가 본 3D 여자분들 중에서 가장 귀엽고 예쁘고 아름다우시다.  
내 또래의 사람들은 모두 공감할 듯”<sup>16)</sup>

하지만 한국에서 구숙정은 여전히 섹시한 여성 스타의 이미지가 더욱 강조되어 소구되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의 포스터와 홍보 과정에서 구숙정의 섹시한 면모를 부각하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여 남성 관객과 팬들의 이목을 끄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이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후 출연한 외전혜옥란 시티헌터등에서도 섹시함을 어필했고, 단지 구숙정이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비디오샵은 남성팬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영화 포스터나 비디오테이프에는 노출 수위가 높을 것처럼 보였지만, 정

15) 신민섭, 김은, 「[창간 30주년 특집] 임청하...유덕화...홍콩배우 전성시대의 추억」, 『일요신문』, 2022년 4월 5일.

16) 출처: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47126&plink=ORI&cooper=NAVER](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47126&plink=ORI&cooper=NAVER), 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작 구숙정은 단 한편의 영화에서도 노출을 한 적이 없어 남성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sup>17)</sup>

1980년대까지 한국영화는 암묵적 ‘3S’<sup>18)</sup> 정책하에 영화에서 여성의 몸을 섹스 어필하는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경향은 점차 사라졌고, 1990년대 한국영화와 한국드라마의 여성 스타의 이미지는 지고지순한 여성상, 청순한 여성상, 귀여운 여성상 등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여성의 스테레오 타입으로 회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숙정은 당시 한국 대중문화의 섹시 여성 스타의 공백을 메워주었고 이는 한국 남성 팬들에게 인기를 끄는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왕조현, 임청하, 구숙정은 당시 한국 대중문화에 다양한 여성 스타의 이미지와 여성성을 보여주며 사랑받았고, 이후 한국 여성 스타들의 다양한 이미지 구축에 일정 정도 참조를 제공했다. 특히, 이들이 영화 속에서 보여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들은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더 이상 남성 캐릭터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주축 역할을 구축하는 데 있어 좋은 예시가 되었다.

또한, 왕조현, 임청하, 구숙정의 다양한 이미지와 여성성은 한국 대중문화 팬덤에 남성 팬들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중문화 팬덤은 여성이

17) 출처: <https://blog.naver.com/bumdols/222678394216>, 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18) “‘3S’는 제5공화국 시기의 대중문화를 특징짓는 표현이지만 학술적 용어는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1980년대의 ‘3S’가 신군부 정권이 우민화를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냐와 정책으로 실재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되곤 한다. 신군부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3S 정책’을 통해서 사회문화적으로 유희, 향락, 퇴폐, 사치 풍조를 조장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3S 정책’은 실체가 없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 같은 대립은 1980년대의 ‘3S’를 신군부 정권의 대중문화적 정책이나 자율화·자유화 조치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바라보는 데서 연유하는데, 1980년대의 ‘3S’는 신군부 정권이 펼친 가속 통치의 수단으로서 당시 정치·경제 정책으로 전개되었다.” 김학선, 「신군부 정권의 가속 통치와 ‘3S 정책’」, 『사회와 역사』 제136집, 한국사회사학회, 2022, 256~257쪽.

팬덤의 주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각기 다른 이미지와 여성성으로 한국 관객에게 어필했던 이들이 각기 다른 남성 팬층을 팬덤으로 유인하면서 한국 대중문화 팬덤의 다양성 구축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약은 팬덤 문화의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 4. 맺음말

본 연구는 1980~1990년대 홍콩영화 속 여성 스타들의 한국 수용을 고찰하여 한류의 전사(前史)로서 홍콩영화 속 여성 스타들이 한국 대중문화와 팬덤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1980~1990년대 당시 홍콩영화에서 활약했던 왕조현, 임청하, 구숙정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구축한 이미지와 기호를 분석하여, 이들이 한국 대중문화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였다.

왕조현, 임청하, 구숙정은 각기 다른 이미지와 기호를 구축하며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고, 이들을 좋아했던 남성 팬들이 선호했던 여성성은 각각 다르다. 왕조현은 청순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고 왕조현의 남성 팬들은 여성에게 오랫동안 요구되어왔던 여성 이미지, 즉 남성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성이라는 스테레오 타입을 좋아했다. 반대로 임청하는 중성적이고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임청하의 남성 팬들은 ‘누님’이라는 새로운 여성상을 좋아했다. 또한, 구숙정은 귀엽고 섹시한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구숙정의 남성 팬들은 그들의 성적 판타지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서 구숙정을 좋아했다.

특히, 이들이 1980~1990년대 홍콩영화 속에서 연기한 여성 캐릭터들은 이전의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여성 캐릭터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캐릭터들로 여성 캐릭터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인식을 형성했다. 이는 이후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속 여성 캐릭터의 변화와 대중문화 팬덤의 다양성 구

측에 일조했다는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의의가 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중화권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류는 서구의 팝 문화와 홍콩 칸토니즈 팝(홍콩 대중문화)의 영향 속에서 발전해 온 혼종적 문화이다. 1990년대 중반 홍콩영화가 쇠퇴하기 이전, 한국영화 산업과 시장은 할리우드 영화와 홍콩영화로 거의 양분되어 있었다. 게다가 1950년대 이후 홍콩영화와 합작영화를 꾸준히 제작해 온 한국영화와 연예계는 홍콩영화와 홍콩 연예 시스템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팬 문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당시 홍콩영화의 스타들은 홍콩을 넘어 아시아의 초국적 스타로 활동했고, 한국에도 빈번하게 내한하였다. 한국의 홍콩 스타 팬들은 홍콩 스타와 홍콩 팬 문화를 항상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홍콩 스타들의 사진이나 인터뷰가 수록된 잡지들은 동네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심지어 홍콩 현지에서 발간된 잡지들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홍콩 현지의 잡지들을 통해 당시 홍콩의 대중문화와 팬 문화를 접하고 이것이 한국의 대중문화와 팬 문화에 녹아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따라서 홍콩영화와 홍콩영화 속 스타들은 한국의 대중문화와 팬덤 문화의 발전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줬으며, 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한류로 이어져 아시아 대중문화와 팬 문화 발전에 일정 정도 공헌하였다. 따라서 홍콩영화 속 여성 스타들의 이미지와 기호, 한국 대중문화에서의 수용과 영향을 고찰한 본 연구는 한류의 전사로서 홍콩영화와 홍콩 스타들의 사회문화적 의의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參考文獻

드라마 <응답하라 1988>

John Storey, 박만준 옮김,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서울:경문사, 2006.

김정은, 「香港電影傳入韓國的歷史與現狀」, 『한중언어문화연구』 제18집, 사단법인 한국현대중국연구회, 2008.

김정은, 「한국의 홍콩 스타 수용과 팬덤의 문화적 함의」, 『한중언어문화연구』 제70집, 2023.

김학선, 「신군부 정권의 가속 통치와 '3S 정책」, 『사회와 역사』 제136집, 한국사회사학회, 2022.

신민섭, 김은, 「[창간 30주년 특집] 임청하...유덕화...홍콩배우 전성시대의 추억」, 『일요신문』, 2022년 4월 5일.

이태훈, 「[연휴 공연 뭐 볼까] 90년대를 추억하며 '굿모닝 홍콩', 친구끼리 조선 클러버 '금란방」, 『조선일보』, 2024년 9월 14일.

이종철, 「[무비&차이나] 임청하와 종초홍」,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이슈&연구, 문화(출처: <https://yonseisinology.org/articles/culture/1001>).

네이버 영화

<https://blog.naver.com/sincia11/222265443157>

<https://blog.naver.com/kinkis/221020093892>

<https://blog.naver.com/whitekoff/140092307603>

[https://blog.naver.com/cine\\_azit/224002975877](https://blog.naver.com/cine_azit/224002975877)

<https://blog.naver.com/hanyu313/223012965084>

<https://blog.naver.com/bumdols/222678394216>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47126&plink=ORI&cooper=NAVER](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47126&plink=ORI&cooper=NAVER)

<https://kr.people.com.cn/n3/2017/0817/c310295-9256710-6.html>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492>

## Abstract

### Cantonese Pop, Korean Popular Culture, and Fandom

—The Reception of Hong Kong Female Stars in Korea during the 1980s and 1990s

Kim, Jung Eun

This study examines how female stars in Hong Kong films of the 1980s and 1990s were received in Korea, and investigates the ways in which these stars influenced Korean popular culture and fandom culture as a pre-history of the Korean Wave (Hallyu). Focusing particularly on three major actresses active in Hong Kong cinema during this period—Joey Wong, Brigitte Lin, and Chingmy Yau—the study analyzes the images and symbols they constructed and explores the impact they had on Korean popular culture and fandom practices.

The female characters portrayed by Wong, Lin, and Yau in Hong Kong films of the 1980s and 1990s broke away from earlier traditional and passive representations of women. Instead, they embodied autonomous and active characters that helped shape new social perceptions of female roles. This shift carries sociocultural significance, as it contributed to later transformations of female characters in Korean popular cultural content and to the diversification of fandom culture.

**Key words** : Cantonese pop, Hong Kong films, female stars, fandom culture, Korean Wave (Hallyu)

투 고 일 : 2025. 10. 10. / 심 사 일 : 2025. 10. 15.~ 2025. 11. 15. / 게재확정일 : 2025. 11. 20.

